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6. Vol. 11, No. 2, 329 - 344

지각된 사회적 평판이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및 성차

이 흥 표[†]

한국마사회 상담센터

이 흥 석

가톨릭대학교 정신과

본 연구에서는 공감적 이타성, 호혜적 신뢰성, 책임감, 능력 유능감, 외모 유능감 등 5가지 지각된 사회적 평판이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 지각된 사회적 평판이 긍정적일수록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행복감이나 정서적 안녕 지수가 높고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성차를 보면 남성에게는 능력이 있고 유능하다는 평판이 일관되게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반면에 여성에게서는 외모가 뛰어나다는 평판이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인이었다. 또한 여성에게서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판이 스스로 지각하는 행복감이나 정서적 안녕감에 중요하지 않은 요인이었던 반면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성차와 여성의 복합적인 현상을 진화심리학적 관점과 사회학습적 관점에서 논하였다.

주요어 : 지각된 사회적 평판, 성차, 심리적 안녕, 자아존중감

현대인은 자유와 경쟁이 증시되는 사회에 살
고 있으며 Darwin(1859) 역시 자연의 선택에 의
한 적자생존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진화하였고,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협동
과 공생, 사회적 수용은 빼놓을 수 없는 생존의
요인이다. 사회적 수용은 심리적 안녕감과 자존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흥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259-1 한국마사회 상담센터 FAX : 031-622-5913, E-mail : youbefree@naver.com

유지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La Guardia, Couch, Couchman, & Deci, 2000; Ryan, Stiller, & Lynch, 1994) 행복감과 만족감 같은 긍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반면(Baumeister & Leary, 2003) 집단으로부터의 거절이나 배척은 낮은 자아 존중감(Leary, 1990; Leary, Tamber, Terdal, & Downs, 1995), 불안과 우울(Baumeister & Tice, 1990; Leary, 1990, Tamber & Leary, 1993), 자기패배적 행동과 공격성, 위협 행동을 증가시키며(Twenge, Catanese, & Baumeister, 2002; Twenge, Baumeister, Tice, & Stucke, 2001), 신체적 고통을 유발하고 경험하는 뇌 부위의 반응을 증가시키기도 한다(Eisenberger, Lieberman, & Williams, 2003).

인간은 수렵채집 사회의 소집단에서 진화하였으며(Dunbar, 1993) 소집단에서의 협동과 호혜적 관계는 생존과 번식의 기반이었다(Ainsworth, 1989; Alexander & Hamilton, 1981; Buss, 1991). 이 때 좋은 평판은 협동의 핵심적인 요인으로(Alexander, 1987; Mohtashemi & Mui, 2003) 평판을 잃으면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으면 호혜의 대상에서 배제된다(이홍표, 한성열, 2006). 나쁜 평판은 우리의 집단적 삶에 중요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평판을 잃으면 지위 경쟁과 자원 획득에 제한을 받게 되어 궁극적으로 번식과 생존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평판의 관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삶의 과제이기도 하며 심리적 안정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쟁에 있어서도 좋은 평판의 획득은 필수적인 요인이다. 개인이나 조직은 자신의 능력과 매력, 도덕성 등 자신이 얼마나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인지를 홍보하려고 애쓴다. 조직(회사)

은 홍보와 광고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정치가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이타적이고 도덕적으로 청렴한지를 알리는데 열중한다. 이는 결국 좋은 평판과 신뢰를 획득하여 동맹세력을 모으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정치가들이 평판을 관리하여 지지 세력을 모으는데 열중하듯이 영장류들도 자신을 지지하는 동맹세력을 모으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Cummins, 1998; Buss, 2004). 따라서 좋은 평판은 행복이나 자기만족, 정서적 안정감과 같은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나쁜 평판은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킬 것이다.

사회적 평판은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그 사람의 행동이 옳은지 집단 구성원들 간에 형성된 평가와 인식”으로(이홍표, 한성열, 2006)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goodness in reputation)의 정의가 호혜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의 하나라는데(Fehr & Fischbacher, 2003; Ohtsuki & Iwasa, 2004)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이 평판의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평판을 받을 때 자신을 좋은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으로 인식하는지, 즉 사회적 평판을 구성하는 심리적 구성요소들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규명, 합의되지 않았다. 최근 이홍표와 한성열(2006)은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가 능력 유능감, 외모 유능감, 공감적 이타성, 책임감, 호혜적 신뢰성임을 밝혀내었다. 공감적 이타성과 호혜적 신뢰성에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친절하며 어려움을 도와주려는 이타적이고 공감적인 특성 및 거짓말과 배신을 하지 않고 비밀을 잘 지키며 보답하려는 상보적인 행위 특성들이 포함된다. 책임감은 성실하고 끈기가 있

으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행위특성을 의미하는데 사람들은 바람직한 동맹의 특성으로 성실함을 높게 평가한다(Decay, Buss, & Stone, unpublished ms; Buss, 2004에서 인용). 이러한 공감적 이타성과 호혜성 및 책임감은 성별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소집단에서 지키고 관리해야 할 평판들이다.

반면에 능력 유능감과 외모 유능감에 대한 평판에는 성차가 관여될 수 있다. 남성은 능력에 기초하여 자신을 정의하려 하며(Cross & Madson, 1997) 사회적 지배 지향성이 강하다(Pratto, Sidanius, & Stallworth, 1993). 진화적으로 능력은 자원과 지위의 획득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자원과 지위는 번식 가능성을 높게 만든다. 실제로 자원이 많고 지위가 높은 남성은 많은 여성들에게 성적 접근을 할 가능성(Perusse, 1993; Buss, 2004), 매력적인 여성과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Elder, 1969; Taylor & Glenn, 1976; Udry & Eckland, 1984). 영장류의 경우 수컷들은 서열 경쟁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주력하는데 무리에서의 높은 지위는 더 많은 혹은 더 우수한 배우자의 획득 및 번식과 직결된다(de Waal, 1982; Ellis, 1995). 여성 역시 남성에 비해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Buss, 1989), 배우자 상대로 재정적 잠재성이 높고(Wiederman, 1993), 지배적 위치에 있거나(Kenrick, Sadalla, Groth, Trost, 1990; Buss, 2004), 자원을 나누어주며 과시하는 남성을 선호한다(Hawkes, 1991). 반면에 지위와 자원이 낮은 남성은 성 선택에서 실패하는 비율이 높다. 그런데 수렵채집사회의 선조들이 수렵을 통해 지위를 인정받았던 반면 현대사회의 지위와 자원 경쟁에서 주된 무기는 인지적, 경제적 능력

과 성취도이다. 따라서 남성은 유능하다는 인정을 받고 높은 성취를 얻는데 투자할 것이며 여성에 비해 성취 손상에 민감할 것이다.

이에 비해 남성에게는 젊고(Kenrick & Keefe, 1992; Kenrick, Keefe, Gabrielidis, & Cornelius, 1996) 신체적 매력과 멋진 외모를 가진 여성이 더욱 중요하고 바람직하게 평가되는데(Buss, Shackelford, Kirkpatrick, & Larsen, 2001) 매력적인 여성 얼굴을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보상회로(쾌락중추)인 측중격핵(nucleus accumbens)이 활성화된다(Aharon, Etcoff, Ariely, Chabris, O'Conner, & Breiter, 2001)고 한다. 여성 역시 이러한 남성의 짝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Buss & Dedden, 1990), 화장과 몸단장 등 외모 증진 전략을 구사하고 “똥똥하고 뭉뚱했다거나 신체 크기와 모양을 조롱하는” 등 라이벌의 신체적 외모를 훼손시킴으로써 동성간의 경쟁에서 승리하고자 한다(Buss, 1988). 따라서 여성은 외모 유능감과 관련된 평판 지각에 민감한 반면 남성은 능력 유능감과 연관된 평판 지각에 민감할 것이며, 이러한 유능감 평판은 성차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를 기초로 하여 사회적 평판의 지각이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심리적 안녕감의 측정으로는 주관적 행복 척도(Lyubomirsky & Lepper, 1999), 주관적 삶의 질 척도(Campbell, 1981) 및 생활 만족도(Diener, Emmons, Larsen, & Griffith, 1985)를 사용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측정에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행복은 현재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기 스스로 지각

되는 주관적인 행복감을 측정하며 주관적 삶의 질은 최근의 감정 지각을 측정한다. 주관적 행복과 주관적 삶의 질은 전반적, 주관적으로 지각된 행복 및 불행 정도와 자신의 삶에 대한 느낌 등 정서적 안녕감을 측정한다. 이에 비해 생활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며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 즉 인지적 측면을 반영한다. 심리적 안녕감에는 삶의 만족, 직업 만족, 긍정적 정서 등 여러 가지 인지적 정서적 측면이 포괄된다(Diener, 2000). 본 연구에서는 자아 존중감의 인지적, 정서적 측면을 포괄하기 위하여 네 가지 척도를 구성, 사용하였다.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긍정적인 평판 지각은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능력 유능감에 대한 긍정적 평판 지각은 여성에 비해 남성에게서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외모 유능감에 대한 긍정적 평판 지각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방 법

피험자

참여 대상은 서울과 대전, 충청북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273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20.61세 (SD=2.08), 연령 범위는 만 18세에서 26세였으며 남성 124명(45.4%), 여성 149명(54.6%)이었다. 결혼 상태는 모두 미혼이었고 무교 142명(52.0%), 기독교 57명(20.9%), 천주교 38명(13.9%), 불교 34

명(12.53%), 기타 2명(.08%) 순이었다.

측정도구

지각된 사회적 평판 척도.

지각된 사회적 평판 척도(이홍표, 한성열, 2006)는 사람들이 소집단이나 대인관계에서 좋은 사람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평판과 신뢰를 얻고 협동의 대상이 되기 위해 중요하게 여기는 5가지의 평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가지 평판은 공감적 이타성 6문항, 호혜적 신뢰성 7문항, 책임감 6문항, 능력 유능감 3문항, 외모 유능감 4문항이며, 1점부터 7점까지 7점 척도,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홍표(2005)의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90이었으며 공감적 이타성 .85, 외모 유능감 .79, 책임감 .86, 호혜적 신뢰성 .82, 능력 유능감 .78이었다.

주관적 행복 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

본 연구에서는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 척도를 사용하였다. 주관적 행복 척도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을 측정하는 4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과 러시아의 대학생 14개 표집군, 273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79에서 .94, 4개 군을 대상으로 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55(1년후)에서 .90(3주)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2이었다.

정서적 안녕 : 주관적 삶의 질 척도(Index of Well-being).

Campbell(1981)의 주관적 삶의 질 척도는 최근의 경험에 대한 감정(삶에 대한 느낌)을 측정하는

7점 척도 8문항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단일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의 경험에 대한 감정은 두개의 형용사가 짝지어 제시되며 삶의 만족도는 % 개념을 사용, 11점 척도로 측정된다. Campbell(1981)은 두 요소를 합하여 전반적인 주관적 삶의 질을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안정을 측정하기 위해 최근의 경험에 대한 감정을 측정하는 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8문항의 내적 일치도는 .83이었다.

삶의 만족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삶의 만족도는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측면을 평가하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 상에서 삶의 만족도를 평가한다(Diener et al, 1985). 김완석과 김영진(1996)의 국내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내적 일치도는 .82이었다.

로젠버그 자아존중감척도.

로젠버그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1965)는 11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5, 내적 일치도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마지막 한 문항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은 것 같다”는 문항 총점 상관이 낮아(-.05) 이를 제외한 1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10문항의 내적 일

치도는 .83이었다.

절차

SPSS 11.0을 이용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의 남녀 차이를 알아본 다음 중다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긍정적인 사회적 평판 지각이 심리적 안녕감과 자기만족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체 투입을 실행하였다. 또한 남녀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비교한 다음 공감적 이타성, 호혜적 신뢰성, 책임감의 3가지 구성요소를 1단계로 투입하고 2단계로 능력 유능감과 외모 유능감을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행하였다.

결 과

먼저 주관적 행복, 정서적 안녕, 삶의 만족 등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남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주관적 행복이나 정서적 안녕, 삶의 만족 등에서는 남녀간의 평균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며, 자아존중감에서도 남녀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표 2에 지각된 사회적 평판 척도의 5가지 구성요소와 심리적 안녕감 및 자아존중감과의 상관이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 평판 총점은 주관적 행

표 1. 주관적 행복, 정서적 안녕, 삶의 만족 및 자아존중감의 남녀 차이

	남	여	MS	F
	M(SD)	M(SD)		
주관적 행복	20.81(3.66)	19.97(3.67)	47.51	3.54 _{ns}
정서적 안녕	38.71(8.92)	36.92(9.39)	213.66	2.53 _{ns}
삶의 만족	20.81(5.13)	19.70(5.05)	84.22	3.26 _{ns}
자아존중감	41.87(5.68)	40.91(5.75)	62.08	1.90 _{ns}

복, 정서적 안녕, 삶의 만족 및 자아존중감과 .47에서 .51의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다 5 가지 평판의 구성요소 중에서는 공감적 이타성과 책임감 평판이 .33~.36, .35~.39로 심리적 안녕감 측정치 및 자아존중감과 고른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며 호혜적 신뢰성 평판 역시 삶의 만족과 .27로 다소 상관이 낮았을 뿐 .31~.37의 고른 상관을 보였다. 능력 유능감 평판은 .36~.42의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외모 유능감 평판이 .23~.28로 상관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이를 기초로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5가지 구성요소가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다회귀분석, 전체투입을 통해 알아보았다. 표 3에서 그 결과를 보면 주관적 행복과 삶의 만족에는 설명력이 26%였으며 정서적 안녕감

에는 24%, 자아존중감에는 30%의 효과 크기를 보였다. 표준화된 회귀계수(Beta)를 보면 공감적 이타성과 책임감 평판은 주관적 행복과 정서적 안녕 및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효과 크기를 보이고 있다. 호혜적 신뢰성 평판은 주관적 행복과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효과 크기를 보이고 있다. 책임감 역시 주관적 행복과 정서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능력 유능감 평판이 .18~.33으로 주관적 행복, 삶의 만족, 정서적 안녕 등 모든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유의하거나 가장 높은 효과 크기를 보였다. 반면에 외모 유능감 평판은 주관적 행복과 삶의 만족에는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으나 정서적안녕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크기가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5가지 구

표 2. 지각된 사회적 평판과 심리적 안녕감과 상관(N=273)

	사회적 평판 총점	공감적 이타성	외모 유능감	책임감	호혜적 신뢰성	능력 유능감
주관적 행복	.51**	.36**	.28**	.36**	.35**	.36**
정서적 안녕	.47**	.36**	.23**	.39**	.31**	.31**
삶의 만족	.47**	.33**	.28**	.35**	.27**	.42**
자아존중감	.51**	.35**	.25**	.37**	.37**	.37**

** $p < .01$

표 3. 지각된 사회적 평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전체 투입

	주관적 행복			삶의 만족			정서적 안녕			자아존중감		
	B	R ²	F(t)	B	R ²	F	B	R ²	F	B	R ²	F
	.26		17.76***	.26		18.22***	.24		16.24***	.30		21.66***
공감적 이타성	.15		2.18*	.16		2.34*	.17		2.46*	.11		1.68ns
호혜적 신뢰성	.15		2.25*	.06		.87ns	.09		1.35ns	.21		3.17**
책임감	.14		2.03*	.12		1.81ns	.18		2.66**	.06		.96ns
능력 유능감	.18		2.74**	.28		4.36***	.20		3.02**	.33		5.35***
외모 유능감	.13		2.11*	.10		1.73*	.05		.78ns	.03		.46ns

* $p < .05$, ** $p < .01$, *** $p < .001$

성요소 간의 상관성이 유의하였다. 성별을 통제한 후의 부분상관계수를 보면 공감적 이타성과 호혜적 신뢰성의 상관성이 .55로 가장 높았으며 책임감은 호혜적 신뢰성과 .45의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능력 유능감은 공감적 이타성, 호혜적 이타성 및 책임감과 .22~.45의 상관성이 있었으며 외모 유능감은 .17~.30의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능력 유능감과 외모 유능감 역시 .38의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이러한 예언변수간의 상관으로 인하여 구성요소 각자의 고유한 설명력이 흐려질 수 있는 바(그러나 중다공선성 측정 결과, 남성 집단의 분산팽창계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는 모두 2.0 이하, 허용오차(Tolerance)는 .5 이상으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 남녀별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화된 부분회귀계수(Beta)를 먼저 비교하였다.

먼저 남성 집단을 대상으로 한 회귀계수가 표 4에 나와 있다. 결과를 보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회귀계수는 공감적 이타성 평판의 예측력이 .16, 능력 유능감 평판이 .15로 가장 높았으며 외모 유능감 평판의 회귀계수는 .11로 능력 유능감에 비해 낮았다. 정서적 안녕에 대한 회귀계수는 능력 유능감 평판이 .38로 가장 높았고 공감적 이타성 평판이 .23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외모 유능감 평판은 -.14로 상반되었다.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계수는 능력 유능감 평판이 .24로 가장 높았으며 공감적 이타성 평판이 .16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외모 유능감 평판은 .14에 머물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회귀계수에서는 능력 유능감 평판이 .45로 가장 높았으며 호혜적 신뢰성과 책임감 평판이 .13으로 그 다음이었으며 외모 유능감 평판은 -.12로 상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에게

외모 유능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능력 유능감 평판이 일관되게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공감적 이타성과 호혜적 신뢰성보다도 앞서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회귀계수를 살펴보면 호혜적 신뢰성 평판의 회귀계수가 .35로 가장 높았으며 외모 유능감 평판이 .17로 그 다음이었다. 능력 유능감 평판은 .12로 외모 유능감에 비하여 낮았다. 정서적 안녕에 대한 회귀계수는 책임감 평판이 .26으로 가장 높았으며 외모 유능감 평판이 .17로 그 다음이었으며, 능력 유능감 평판은 .08로 외모 유능감에 비하여 낮았다. 반면에 삶의 만족도에 대한 회귀계수에서는 능력 유능감 평판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책임감 평판이 .14로 그 다음이었으며 외모 유능감 평판은 .09에 머물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회귀계수에서도 능력 유능감 평판이 .27로 가장 높았으며 호혜적 신뢰성 평판이 .22로 그 다음이었다. 외모 유능감 평판은 .14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 유능감 평판이 여성에게 주관적 행복과 정서적 안녕감 등 정서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능력 유능감 평판 역시 개인과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즉 인지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5를 보면 남성의 경우 1 단계에 투입한 공감적 이타성, 호혜적 신뢰성, 책임감 평판이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의 19~23%를 설명하고 있었다. 2 단계에서 능력 유능감을 투입한 결과, 능력 유능감이 주관적 행복감의 2.9%를 부가적으로 설명하였고 $t=.041$, $p<.05$ 정

서적 안녕감의 6.8%를 설명하였다 $t=.001, p<.01$. 또한 삶의 만족도의 6.4%를 부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t=.002, p<.01$ 자아존중감에는 10.7%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t=.000, p<.001$. 반면에 외모 유능감을 투입한 경우 생활 만족도에는 4.3%의 유의한 설명력을 부가적으로 보였으나 $t=.013, p<.05$ 이를 제외하고는 주관적 행복과 정서적 안

녕 및 자아존중감에는 설명력이 거의 혹은 전혀 유의하지 않았다 $t=.023, ns, t=.000, ns, t=.002, ns$. 부분상관계수에서도 외모 유능감 평판에 비하여 능력 유능감 평판의 상관계수가 모두 높았다.

반면에 표 6을 보면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였다. 여성에 있어서는 1단계에 투입한 공감적 이타성, 호혜적 신뢰성, 책

표 4.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표준화된 부분회귀계수(Beta)

	주관적 행복		정서적 안녕		삶의 만족		자아존중감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공감적 이타성	.16	-.01	.23	.13	.16	.11	.10	.11
호혜적 신뢰성	.09	.35	.01	.12	.00	.13	.13	.22
책임감	.13	.10	.08	.14	.10	.26	.13	.04
능력 유능감	.15	.12	.38	.28	.24	.08	.45	.27
외모 유능감	.11	.17	-.14	.09	.11	.17	-.12	.14

표 5. 능력 및 외모 유능감 평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의 위계적 회귀분석(남성)

	1단계(R^2)	능력 유능감 평판			외모 유능감 평판		
		ΔR^2	Partial	t	ΔR^2	Partial	t
주관적 행복	.43(.19)	.029	.188	.041*	.023	.168	.067
정서적 안녕	.44(.19)	.068	.290	.001**	.000	.000	.996
삶의 만족	.41(.17)	.064	.277	.002**	.043	.228	.013*
자아존중감	.48(.23)	.107	.372	.000***	.002	.046	.618

Partial=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 $p<.05$, ** $p<.01$, *** $p<.001$

표 6. 능력 및 외모 유능감 평판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의 위계적 회귀분석(여성)

	1단계(R^2)	능력 유능감 평판			외모 유능감 평판		
		ΔR^2	Partial	t	ΔR^2	Partial	t
주관적 행복	.46(.21)	.018	.152	.072	.040	.225	.007**
정서적 안녕	.46(.21)	.012	.124	.142	.037	.218	.009**
삶의 만족	.43(.18)	.077	.306	.000***	.026	.178	.034*
자아존중감	.43(.18)	.076	.306	.000***	.047	.238	.004**

Partial=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 $p<.05$, ** $p<.01$, *** $p<.001$

임감 평판이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의 18~21%를 설명하였다. 이는 남성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2단계에서 외모 유능감 평판을 투입한 결과, 외모 유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의 4.0%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고 $t=.007, p<.01$ 정서적 안녕감의 3.7%를 설명하였다 $t=.009, p<.01$. 또한 삶의 만족의 2.6%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였으며, $t=.034, p<.05$ 자아존중감에는 4.7%의 설명력을 보였다 $t=.004, p<.01$. 부분상관계수에서도 능력 유능감 평판에 비하여 외모 유능감 평판의 상관계수가 높았다. 반면에 능력 유능감 평판의 효과는 보다 복잡한데 주관적 행복과 정서적 안녕에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던 반면 $t=.018, ns$, $t=.012, ns$. 삶의 만족과 자아존중감에는 7.6~7.7%의 유의한 설명력을 추가적으로 보였다 $t=.000, p<.001, t=.000, p<.001$. 부분상관계수 역시 외모 유능감 평판에 비하여 능력 유능감 평판의 상관계수가 높았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평판이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진화심리학적 측면에서 능력 및 외모 유능감 평판에 따라 성차가 있을 것이며, 남성은 능력 유능감 평판이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성은 외모 유능감에 대한 평판을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이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지각된 사회적 평판이 주관적 행복, 정서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등의 심리적 안녕감

과 자아존중감의 26~30%를 설명하였다. 지각된 사회적 평판이 높을수록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행복 수준이나 정서적 안녕 지수가 높고 삶의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이 높아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성차에 따른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남성에게서는 능력 유능감에 대한 평판이 주관적 행복과 정서적 안녕, 삶의 만족 등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평판 요인이었으며 특히 자아존중감에 가장 높은 효과 크기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에 외모 유능감에 대한 평판은 삶의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행복감이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남성에게서는 능력이 있고 유능하다는 평판이 일관되게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외모가 뛰어나다는 평판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유능감 평판이 심리적 안녕감과 자기 가치감에 중요하다는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능력 유능감과 외모 유능감에 대한 평판이 미치는 영향이 남성에 비해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성에게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판이 주관적 행복이나 정서적 안녕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에 외모가 뛰어나다는 평판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행복이나 정서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삶의 만족 지수와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여성에게 외모가 뛰어나다는 평판이 정서적 안정감 유지와 자기 만족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요인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능력 유능감 평판 또한 삶의 만족이나 자아존중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설 3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즉 여성의 경우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판은 개인 스스로 전반적으로 지각하는 행복감이나 정서적 안정감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반면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 즉 인지적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시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남성에게는 외모가 뛰어나다는 평판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판이 중요하게 지각되는 반면 여성에게는 외모가 이쁘고 날씬하거나 매력적이라는 평판이 스스로 지각하는 긍정적 정서나 행복감, 만족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시사된다. 이는 자신을 성공하거나 돈을 많이 벌 잠재력이 높다고 여기는 남성일수록 단기적 성적 전략을 추구하며 (Landolt, Lalumiere, & Quinsey, 1994) 남성이 여성에 비해 파트너의 신체적 매력도에 더욱 높은 가치를 두는 반면에 여성은 성공, 즉 자원과 지위 획득 가능성에 보다 높은 가치를 둔다(Buss, 1989, 1994; Feingold, 1990, 1992)는 진화심리학적 연구들과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이성 상호간의 성적 선호도에 양성이 서로 민감하게 상호반응하기 때문에(Buss & Dedden, 1990) 자신이 지각하는 평판은 심리적 안정감이나 자아존중감 뿐 아니라 애인과 배우자 선택이나 유지, 성관계 등 성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지각된 평판이 성적 행동이나 배우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검증되지 않았으며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둘째 여성의 경우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판은 자신이 정서적으로, 전반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이나 행복감등 정서적 차원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더 깊은 수준 혹은 인지적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여성 역시 능력이 뛰어나고 똑똑하거나 리더쉽과 추진력이 있다는 평판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시사되었다. 따라서 여성에게는 외모에 대한 평판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인이지만 능력에 대한 평판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세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우리의 선조 여성이 적응해야 할 환경과 현대의 여성들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은 진화역사의 99% 이상을 수렵-채집자로 살았으며, 수렵채집사회에서 남성들은 수렵에 집중하고 여성과 친족 여성은 주로 채집과 양육을 부담하였다(Tooby & DeVore, 1987). 그러나 진화적 역사의 시간, 특히 급속한 현대적 환경의 변화에서 볼 때 오늘날 남성들이 적응해야 할 환경과 성역할은 변화하지 않는 반면, 여성이 적응해야 할 환경이나 성역할은 크게 변화하였을 수 있다. 오늘날의 여성에게 양육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성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양육에 투자한다(Barah & Lipton, 1997). 이와 동시에 여성들의 취업과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에게도 능력을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진화적 압력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양육 투자의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고 남성의 성적 선호도나 여성의 외모에 대한 중시 역시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성은 외모와 유능감이라는 두 가지 압력에 노출될 수 있다.

둘째로 여성에게도 능력이 중요한 요인이었을 수 있다. 남성이 다른 집단 내지 동일 집단의 다른 남성과 경쟁하였다면 여성의 진화적 환경 역시 다른 여성과 경쟁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적응 환경에서 외모 뿐 아니라 능력도 중요한 요인이

있을 것이다. 여성도 지위와 서열을 갖고 다투며, 따라서 여성 역시 경쟁적이거나 리더십이 있고 똑똑한 여성이 높은 지위서열에 오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영장류의 위계서열에서도 암컷들은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 경쟁한다. 수컷의 권력 구조에 공백이 생기면 암컷이 권력의 위치를 차지하며, 높은 지위에 있는 암컷은 낮은 지위에 있는 암컷들의 복종을 받고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한다(de Waal, 1982). 따라서 성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만 개인차 역시 중요한 차원이며(성격이나 정서처럼) 여성들의 능력에 대한 평판은 지위 경쟁이나 우수한 배우자 획득에 중요한 자원일 수 있다. 현대에도 직업적, 경제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은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을 선호한다(Buss, 1989). 이와 관련하여 외모와 질투를 연구하는 일부 진화심리학자들은 자연선택이 양성에 따라 분화된(sexual-specific) 모듈(JSIM: jealousy as a specific innate module)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공통된 보다 유연하고 덜 분화된 심리적 메카니즘을 만들어내었다(Caporael, 2000; Eagly & Wood, 1999)고 주장한다. 이러한 가설을 적용한다면 외모와 능력 유능감에 대한 평판에는 성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는 적고 유연하며 가소성의 범위 역시 클 것이다. 즉 평판에 대한 성차는 양성에 따라 분화된 모듈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나 남성 모두 외모와 능력에 대한 평판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진화적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형태로 진화하였을 것이다.

셋째 사회맥락적 관점(social context perspective; Sprecher, Regan & McKinney, 1998)에 따르면 남녀의 차이는 선천적이거나 생물학적인 것

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 학습, 내재화되었기 때문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권력과 자율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Blumberg, 1989; Edward & Booth, 1976). 현대에 올수록 성차가 감소하고 성역할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여성의 능력이 중시되고 역으로 외모에 관심을 갖는 남성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능력 평판이 미치는 영향은 여성들의 권력과 자율성이 증가하고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변화하면서 성역할의 경계선이 유연해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중요한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본 연구의 대상은 대학생이었고 이를 성인으로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학생은 우리의 선조들과 달리 아직 능력과 외모의 기능이 분화되지 않은 환경, 즉 능력과 외모 유능감이 동성간, 이성간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능력이나 외모 평판이 지위와 자원 획득, 짝짓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결혼적령기와 기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시사되었지만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한 검증이 직접적인 성차의 검증은 아닐 수 있는 바,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차에 대한 직접적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가장 큰 한계점으로 성차가 발견되었지만 그 발생 메카니즘은 아직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평판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성차, 특히 여성의 외모 유능감과 능력 유능감 평판이 미치는 영향은 진화적 환경의 차이에 근거할 수도 있으며 사회학습적 과정에 기인할 수도 있다. 우리는 아직 선조들의 진화적 환경을 충분히 이

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화심리학 진영의 내부에서도 분화된 모듈 이론과 뇌가 보다 유연하고 가소적인 문제해결자로 진화하였다는 이론이 충돌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앞으로 진화심리학적 이론의 검증 뿐 아니라 선조들의 진화적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실험법이나 중단적 추적 등 엄밀한 실험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시사된다.

참고문헌

- 김완석, 김영진 (1997). 주관적 안녕 척도 공동생활 및 활동과의 연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61-81.
- 이명신 (1981). 근로자의 주관적 삶의 질과 그 영향요인.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홍표, 한성열 (2006). 지각된 사회적 평판의 구성요소 탐색과 타당화. 2006년 한국건강 심리학회 차 학술발표대회 및 워크샵, 23-25.
- 윤유경. (1996). 주관적 연령의 예측요인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박사학위 논문
- Aharon, I., Etcoff, N., Areily, D., Charbris, C. F., O'Connor, E., & Breiter, H. C. (2001). Beautiful faces have variable reward value: fMRI and behavioral evidence. *Neuron*, 32, 537-551.
- Ainsworth, M. D.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709-716.
- Alexander, R. D. (1987). *The Biology of Moral Systems*. Aldine de Gruyter, New York.
- Axelrod, R., & Hamilton, W. D. (1981).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Science*, 211, 1390-1396.
- Barash, D. P., & Lipton, J. E. (1997). *Making sense of sex*. Washington, DC: Island Press/Shearwater Brooks.
- Baumeister, R. F., & Leary, M. R. (2003).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3, 497-529.
- Baumeister, R. F., & Tice, D. M. (1990). Anxiety and social exclu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165-195.
- Blumberg, R. L. (1989). *Gender, Family, and Economy*.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s.
- Buss, D. M. (1988). From vigilance to violence: Tactics of mate retention. *Ethology and Sociobiology*, 9, 291-317.
- Buss, D. M. (1989). Sex differences in human mate preferences: Evolutionary hypothesis testing in 37 cultur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2, 1-49.
- Buss, D. M. (1991). The evolution of anxiety and social exclu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 196-210.
- Buss, D. M. (1994). *The Evolution of Desire: Strategies of Human Mating*. Basic Books.
- Buss, D. M. (2004). *Evolutionary psychology: The new science of the mind*. 2nd Ed. Person Education, Inc : Allyn & Bacon.
- Buss, D. M. & Dedden, L. A. (1990). Derogation of competitor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395-422.
- Buss, D. M., Shackelford, T. K., Kirkpatrick, L. A., & Larsen, R. J. (2001). A half century of American mate prefer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491- 503.
- Campbell, A. (1981). The sense of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31, 117-124.
- Caporael, L. R. (2000). Evolutionary psychology: Toward a unifying theory and hybrid science.

-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607-628.
- Cosmides, L., & Tooby, J. (1992). Cognitive adaptations for social exchange. In J. Barkow, L. Cosmides, & J. Tooby(Eds). *The adapted mind* (pp. 163-22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s. *Psychological Bulletin*, 122, 5-37.
- Cummins, D. D. (1998). Social norms and other minds: The evolutionary roots of higher cognition. In D. D. Cummins & C. Allen (Eds.). *The evolution of mind* (pp. 30-5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arwin, C. (1859). *On the origin of species*. London: Murray.
- DeKay, W. T., Buss, D. M., & Stone, V. (2004) Coalitions, mates, and friends: Toward and evolutionary psychology of relationship preferences. In D. M. Buss(Ed). *Evolutionary psychology: The new science of the mind*. Person Education, Inc : Allyn & Bacon.
- de Waal, F. (1982). *Chimpanzee politics: Sex and power among apes*. Baltimore, MD: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 34-43.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3).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unbar, R. I. M. (1993). Coevolution of neocortical size, group size, and language in human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 16, 681-735.
- Eagly, A. H., & Wood, W. (1999). The origins of sex differences I human behavior: Evolved dispositions versus social roles. *American Psychologist*, 54, 408-423.
- Edward, J. N., & A. Booth. (1976). Sexual behavior in and out marriage: An assessment of correlat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8, 73-78.
- Eisenberger, N. I., Lieberman, M. D., & Williams, K. D. (2003). Does rejection hurt? An fMRI study of social exclusion. *Science*, 302, 290-292.
- Elder, G. H., Jr. (1969). Appearance and education in marriage mobi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 519-533.
- Ellis, L. (1995). Dominance and reproductive success among nonhuman animals: A cross -species comparison. *Ethology and Sociobiology*, 16, 257-333.
- Fehr, E., & Fischbacher, U., (2003). The nature of altruism. *Nature*, 425, 785-791.
- Feingold, A. (1990). Gender differences in effects of physical attractiveness on romantic attraction: a comparison across five research paradig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981-993.
- Feingold, A. (1992). Gender differences in mate selection preferences: a test of parental investment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2, 125-139.
- Kenrick, D. T, Sadalla, E. K, Groth, G., & Trost, M. R. (1990). Evolution, traits, and the stages of human courtship: Qualifying the parental investment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58, 97-116.
- Hawks, K. (1991). Showing off: Tests of another hypothesis about men's foraging goals. *Ethology and Sociobiology*, 11, 29-54.

- Kenrick, D. T., & Keefe, R. C. (1992). Age preferences in mates reflect sex differences in reproductive strategie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5*, 75-133.
- Kenrick, D. T., Keefe, R. C., Gabrieniadis, C., & Comelieus, J. S. (1996). Adolescents' age preferences for dating partners: Support for an evolutionary model of life-history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67*, 1499-1511.
- La Guardia, J., Ryan, R. M., Couchman, C.,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i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367-384.
- Landolt, M. A., Laluiere, M. L., & Quinsey, V. L. (1994). Sex differences in intra-sex variations in human mating tactics: An Evolutionary approach. *Ethology and Sociobiology*, *16*, 3-23.
- Leary, M. R. (1990).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Social anxiety, jealousy, loneliness, depress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221-229.
- Leary, M. R., Tambe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Psychology*, *71*, 1250-1267.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 Research*, *46*, 137-155.
- Mohtashemi, M., & Mui, L. (2003). Evolution of indirect reciprocity by social information: The role of trust and reputation in evolution of altruism.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223*, 523-531.
- Ohtsuki, H., & Iwasa, Y. (2004). How should we define goodness?-reputation dynamics in indirect reciprocity. *Journal of Theoretical Biology*, *231*, 107-120.
- Perusse, D. (1993). Cultural and reproductive success in industrial societies: Testing the relationship at proximate and ultimate levels.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16*, 267-322.
- Pratto, F., Sidanius, J., & Stallworth, L. M. (1993). Sexual selection and the sexual and the ethnic basis of social hierarchy. In L. Ellis (Ed.), *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oeconomic inequality* (pp. 111-137). Westport, CT: Praeger.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yan, Rm. M. Stiller, J., & Lynch, J. H. (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249.
- Sprecher, S., R. Regan, & K. McKinney. (1998). Belief about the outcomes of extramarital sexual relationships as a function of gender of the cheating spouse. *Sex roles*, *38*, 301-312.
- Tamber, E. S., & Leary, M. R. (1993). *Perceived exclusion as a common factor in social anxiety, loneliness, jealousy, depression, and low self-esteem*.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Taylor, P. A., & Glenn, N. D. (1976). The utility of

- education and attractiveness for females' status attainment through marria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1, 484-498.
- Tooby, J. & DeVore, I. (1989). The Reconstruction of hominid behavioral evolution through strategic modeling. In W. G. Kinzey (Ed). *The evolution of human behavior* (pp. 183-237).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Twenge, J. M., Baumeister, R. F., Tice, D. M., & Stucke, T. S. (2001). If you can't join them, beat them: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 1058-1069.
- Twenge, J. M., Catanese, K. R., & Baumeister, R. F. (2002). Social exclusion causes self-defeating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 606- 615.
- Udry, J. R., & Eckland, B. K. (1984). Benefits of being attractive: Differential payoffs for men and women. *Psychological Reports*, 54, 47-56.
- Wiedermann, M. W. (1993). Evolved gender differences in mate preferences: Evidence from personal advertisements. *Ethology and Sociobiology*, 14, 331-352.

논문접수일: 2006년 4월 5일

게재결정일: 2006년 5월 29일

The Effect of Perceived Social Reputa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lf-Esteem, and Sexual Differences

Heung-Pyo Lee
Addiction Counselling Center
Korea Racing Association

Hong-Seok Lee
Department of Psychiatry
Catholic Universit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at the effects of five perceived social reputations consist of sympathetic altruism, reciprocal trust, responsibility, ability competence, appearance competence reputation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lf-esteem, and the effect differences of ability competence and appearance competence reputation between the sexes. In the study results, the more perceived social reputations were positive, the more subjectively perceived happiness, emotional well-being, the more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were high. In sexual differences, the reputation which is able and competence were consistently important pre-requisite on man. Different from man, reputation which her appearance is attractive and superior was primal cause to hav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lf-esteem for woman. Also, in case of woman, it appeared that reputation which is able and competent haven't important effect on subjective happiness and emotional well-being, but have primal effect on appraisal for one' life and self-esteem. These sexual differences and women's complicated implications about ability and appearance competence reputation were discussed from a evolutionary psychological view and social context view.

Keywords: *perceived social reputation, sexual differences, psychological well-being, self-esteem*